

사설

1만 사부대중의 쫓겨

10월 1일과 2일에 연이어 나온 '조계종 총무원장 부존재' 판결과 '법원의 조계종 총무원장 직무대행 지명'으로 불교계가 또다시 혼란의 와중에 휩쓸렸다. 이런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처음에는 불교계가 절차적 정의를 지키는데 너무 소홀했던 것이 화근이었다는 반성도 있었으나, 그런 반성은 뒤이어 터져나온 너무도 큰 분노에 묻혀버리고 말았다. 그러한 분노는 불자라면, 아니 양식있는 모든 사람이 느껴 마땅한 당연한 분노였다.

판사는 총무원장을 선출한 총회의 적법성은 인정하면서도, 단순한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삼아 '총무원장이 없다'는 판결을 내리버렸다. 총회를 인정했다는 것은 암묵적으로 그와 적대적 입장에 있던 정화회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 최대 종교의 수장을 이렇게 간단하게 부정하여 버릴 수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될 경우 그동안 안정을 찾아 가던 조계종 전체가 속발이 되고 말 것이라는, 그리하여 불교가 회복 불가능한 구렁텅이에 빠질 것이라는 현실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고, 종교적 자율성을 무시한 처사다.

너무도 터무니없는 판결에 불교계의 분노는 이번 판결에 불교계를 무력화시키려는 어떤 고의적인 저의가

있지나 않은가 하는 의심으로부터 회피되고 있다.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속되어 온 정부의 종교편향적인 정책에 오랜 동안 피해를 입어온 불교계의 불만이 이 사건을 계기로 증폭되고 있다. 12일 열린 '불교자주권과 법통수호를 위한 사부대중 쫓겨대회'에 모인 1만불자의 성난 외침은 천만 불자의 자존심이기도 하다. 정권과 사법부는 이러한 측면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불교계는 불교계 나름대로, 불교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적인 힘을 빌어 해결하려 했던 과거의 업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만 한다. 정권에 빌붙어 어찌지 않게 그 환심을 삼으려서 주는 폐어나 받아먹으려 했던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 떳떳치 못한 외부적인 압력에 모든 불자들의 힘을 모아 대응하는 역할을 키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내부의 문제는 부처님의 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청정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고, 외부적인 힘을 끌어들이려 하는 어떤 세력이나 시도에 대해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는 선언이 있어야 한다. 오랜 업보의 결과로 받는 이번의 사태를 불교의 자주권 수호를 위한 대 전기로 삼아야 한다.

용납할수 없는 폭력

청정 승단과 관계된 분규에 쇠파이프를 든 두 집단이 유혈 난투극을 벌인다. 거기에 회색장삼이 필러인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텔레비전의 화면 발을 잘 받는 소재는 없다. 잘만 하면(?) 세계 곳곳에 이 모습이 전파를 타고 전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불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뒷안 애써왔던 노력들은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다. 온 국민들은 "또야?" 하는 경멸감 섞인 시선을 보내며 마련이고, 이천만 불자들은 좌절감과 자괴감에 몸둘 곳을 찾지 못하게 된다. 생각하기조차 싫은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된 것이 얼마인가? 그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여태껏 끊지 못하고 오늘에까지 반복하고 있는 불교계의 현주소는 과연 어디인가?

물론 사건의 전말은 무시한 채 선정적인 보도만을 일삼는 언론의 언론에도 문제는 있다. 그러나 언론을 탓하기에는 불교계에 폭력이 횡행해온 역사가 깊고, 그로 말미암아 입은 상처가 너무나 크다. 이제 이 악연을 끊어내지 않으면 불교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라는 위기의식이 모든 불자들에게 광배해 있다. 국민들이 경멸하

고, 모든 불자들이 등을 돌린다면 과연 무엇을 두고 폭력까지 동원되는 싸움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인 것이다.

불가 승단은 모든 불자들, 나아가 모든 중생들이 모범으로 삼아야 할 이상적 공동체여야 한다. 그러하기에 엄하고도 엄한 청정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모범이어야 할 승단과 관계된 분규에 세속인들도 눈살을 찌푸릴 폭력이 횡행한다는 것은 어떤 변명으로 도 용납될 수가 없다.

이제라도 어떤 사태에서도 결단코 폭력을 사용하는 일이 없을 것임을 선언하라. 폭력에 당할지언정 폭력을 휘두르는 일이 없는 청정 승단의 모습을 보이라. 그것만이 한국 불교가 살 길이다.

앞으로는 어느 불자가 폭력을 통해 세력을 잡으려는 집단을 귀의의 대상인 승단으로 인정치 않을 것이다. 폭력에 직접 관여한 스님들을 공경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것이다. 소리가 번지는 이천만 불자들의 소리를 부처님의 천둥같은 귀짓음으로 들어야 할 때이다.

재가단체 "폭력 안된다"

총무원 사과-정화회의 해산 요구

12일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 발생한 유혈폭력사태와 관련 불자들과 재가단체들이 조계종총무원의 사과와 정화회의의 해산을 요구하고 나섰다.

13개 재가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불교바로세우기 재가연대(상임의장 박광서)는 14일 집회위원을 열고 "불교자주권 수호라는 대의명분이 퇴색하고 다시 한번 한국불교의 위상추락을 가져온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총무원은 국민과 불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가연대는 또 "어떠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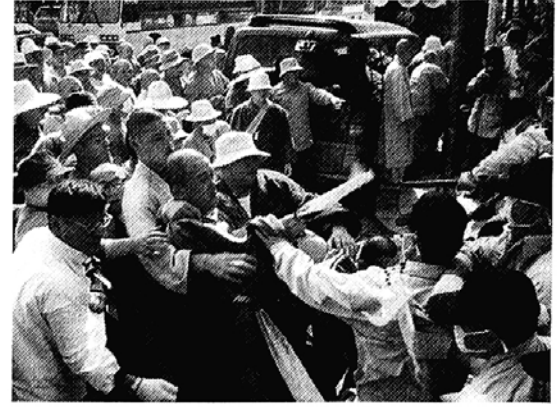
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비폭력의 원칙이 견지되지 않을 때 불교의 존재 의의와 종교적 가치를 상실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화회의의 해산을 촉구했다.

전국신도회(회장 선진규)도 12일 "또다시 중단분규가 표면화되어 난투극이 벌어진데 대해 통분을 금치 못한다"며 공문을 돌려 모든 소송과 투쟁, 폭력과 물리적 행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전반야회 이순형 사무국장은 "어떻게 직장불교회를 일과

하고 있는 우리에게 스님들이 도움이 되지는커녕 찬물을 끼얹었다"고 분개했다. 이씨는 "도덕성이 결여된 아मान 찬 종교인은 존경받을 수 없다는 것을 스님들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총무원장은 14일 재가연대의 조계사 출입문 개방과 철조망 제거 요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경비용역의 철수에 대해서는 청사 경비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12일 오전 조계사 입구에서 총무원측(오른쪽)과 정화개혁회의측 스님 및 용역업체 직원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또 부끄러운 폭력사태

12일 조계사 앞 집단 난투극 9명 부상

조계종의 내부이 또다시 폭력 사태를 빚었다.

12일 오전 11시10분쯤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진입로에서 총무원측 호법단 소속 스님 및 용역업체 직원 200여명과 정화개혁회의측 스님과 사설 경호업체 직원 100여명이 충돌, 10여분 동안 집단 난투극을 벌였다.

이날 충돌로 정화회의측 일공 스님(43)의 코뼈와 이가 부러지는 등 9명이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중 정화회의측 스님 2명은 총무원측에 의해 한때 조계사에 감금됐다.

이번 충돌은 정화개혁회의 스님·신도들이 오전 11시쯤 조계종 접수를 위해 청사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 등으로 무장한 일부 용역업체 직원들이 정화회의측을 공격하면서 일어났다. 충돌과 정에서 소화기 10여개와 쇠파이프 등이 난무해 부상자가 속출

폭력사태 관련 주요일간지 사설

"불교계 화합의 모습 보고싶다"

12일 현 총무원측과 정화회의 측간의 유혈폭력사태가 빚어지자 조선, 중앙, 한국, 세계일보, 13일과 14일 일제히 사설을 통해 이를 비난하고 이해와 양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이들 사설의 제목과 함께 내용을 요약한 것.

■스님들, 폭력만은 제발(조선일보)

이번 폭력사태는 CNN과 AP 등 외신을 타고 전세계에 보도됐으니 국제망신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화합을 상징하는 승단에서 불교 율법이 아닌 사회법을 놓고 갈등을 노출한 것도 불상사인데, 세속법에서도 금하는 폭력을 행사했다면 당사자들은 현행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

■보고싶은 불교계의 화합(중앙일보)

폭력과 갈등이 일상화된 세속 사회를 제도하고 자비와 화합으로

정부는 분규가 폭력사태로 장기간 고착화하는 것을 방지해서는 안된다. 조계종 분규 때마다 조직폭력배가 고용되고 있다는 소문도 있는 만큼, 경찰은 조기에 조직폭력배나 그들을 고용한 측을 엄중히 징계해서 고질화한 폭력을 차단해야 한다.

■우리시대의 종교란 무엇인가(세계일보)

비단 불교계뿐만 아니라 기독교계에서도 종교의 본질과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개혁해야할 과제는 결국 세속과 다름없는 불행 혹은 물질주의 추구, 그리고 권력화와의 집착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불교건 기독교건 그 본 역할을 외면할 때 시민사회로부터 철저한 경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자각해야 한다.

취재1부

네트워크 디자인과 모집요항 및 교사초빙

특성화 고교지정
정담정보통신고등학교

네트워크 디자인과란?

"21세기의 모든 길은 인터넷으로 통한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신지식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터넷상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학 분야의 전자상거래, 산업디자인 분야의 웹 디자인, 또한 공학분야의 정보기술 부분들의 학문적인 통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교에서는 기존의 획일화된 교육과정과 비효율적인 학습방법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두뇌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에 컴퓨터에 관심과 흥미를 갖고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디자인과' 라는 특성화 교육을 통해 교육적인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학생 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우고 더 나아가 21C의 미래 지식기반 정보화사회에 도전할 인재를 모집합니다.

- ◆모집정원 : 30명(남·여 공학 3학급)
- ◆지원자격
가.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나.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다.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자
- ◆원서접수
가. 1999. 10. 25(월) ~ 1999. 11. 2(화)
나. 특수목적고등학교 모집과 동일
- ◆전형일정
가. 수험생 예비소집: 1999. 11. 4 (목) 14:00
나. 면접 및 필기시험: 1999. 11. 5 (금) 09:00
다. 합격자 발표: 1999. 11. 8 (월) 10:00
-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나.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다. 각종 경시대회 상장 사본 및 자격증 사본 1통
- ◆특전 / 졸업 후 진로
가. 현대식 생활관 운영
나. 최첨단 교육장비 도입(1학생 1PC제공)
다. 본교 재학생 공모전 참가토록 하여 특별전형으로 대학진학
라. 각종 자격증 취득으로 대기업, 방송사 및 금융기관 등에 취업
마. 국내 벤처기업과 연계, 산학협력 및 장학금 지급 확대
바. 우수학생들은 방학중 해외 순환 연수(미국 실리콘밸리)등
사. 졸업후 창업 지원

- ◆교사초빙
가. 초빙분야: 웹 디자인, 웹 프로그래머, 웹 마스터, 인터넷 서버, 전자 상거래 일반, 정보통신 일반, 정보통신 실무
- 나. 초빙인원: 각분야 약4명
- 다. 응모자격: 1)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2) 산업체에서 각 학과 관련분야와 유사한 직무에 종사(3년이상) 하고 있는 분
- 라. 제출서류: 1) 이력서(경력증명서 첨부 및 전화번호, 응모분야 기재)
2) 학력 및 성적 증명서(학사, 석사)
3) 재직증명서
- 마. 제출기간 및 제출처
1999년 11월 2일 17:00까지 본교 행정실
(0333)691-8095, 9100, 7635
(우)451-800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96-1
홈페이지: www.chongdam-1ch.ad.kyonggi.kr

21세기 정보화를 주도하는 특성화 교육

정담정보통신고등학교

학교법인 청담학원 설립자 이혜성
이사장 김광복
정담정보통신고등학교 교장 이권우 합장

